

귀농·귀촌인 대상 체류형 농업지원센터 8년째 운영

고창군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전북 고창군이 ‘2025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서 13년 연속 귀농·귀촌도시 부문에 선정됐다.

고창군은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정착금을 지원한다. 또 귀농 초기에 충분한 소득이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창업 및 주택구입 대출 이자 1%를 3년간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고창군은 예비 귀농·귀촌인이 고창에서 미리 살아볼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8년째 운영 중이다. 센터에선 매년 30세대가 3월부터 11월까지 거주하면서 체계적인 영농 기술 교육과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공동체를 위해 고창군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농촌,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고창을 만들기 위하여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현승 기자

전국 최초 365일 24시간 보육실 운영… 행복두끼 사업도

진주시

경남 진주시가 ‘2025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다. 2020년부터 6년 연속 뽑힌 것이다.

진주시는 전국 최초 실시 보육시스템인 365일 24시간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개소 등을 통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협약을 통한 진주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형 키즈카페와 장난감은행, 국공립 어린이집들을 묶어 공동 보육하는 구슬모음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전방위적인 보육 및



돌봄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진주시는 아동의 놀이문화와 가족의 여가생활을 위해 하모 유아스포츠단을 비롯해 물놀이장, 야외스케이트장, 가족놀이 공간인 진양호 하모놀이숲·꿈키움동산 등을 운영 중이다. 진주시는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2023년 7월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 친화 도시’에 선정됐다. 이선목 기자

‘마이 유니버스, 경산’ 브랜드로 시민 행복도시 추진

경산시

경북 경산시가 ‘2025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서 2년 연속 도시 브랜드 부문에 선정됐다. 경산시의 도시 브랜드는 ‘마이 유니버스, 경산’ (My universe Gyeongsan, 나와 함께 경산)이다.

경산시는 2023년 새 도시 브랜드를 공개했다. 민선 8기 핵심 기조인 ‘시민 중심 행복 경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새 도시 브랜드는 ‘마이 유니버스, 경산’ 문구와 함께 입체형 이미지를 도입했다. ‘위성’이 아닌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성’의 형태로 세상을 이끄는 젊고 활기찬 도시를 이미지화한 것이다. 경산시는 새 도시 브랜드를 통해 경산의 역동적 성장, 첨단 과학기술과 융복합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비전, 그리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도시라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왔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한 것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일궈 낸 성과”라고 했다. 최정석 기자

8171억원 투입,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2029년 조성

충주시

충주시가 ‘2025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서 국가바이오산업 선도 도시 부문 대상을 받았다.

충주시는 바이오산업을 주요 신성장 동력으로,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입지의 조성 추진과 바이오 연구인프라 확대, 기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대소원면 본리·완오리 일대에 224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8171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충주시는 이 산단을 바이오기술(BT)과 정보통신기술(IT)을 융복합한 헬스케어 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충주시는 바이오소재 시험평가 센터 구축 사업도 진행 중



“바이오 헬스 국가 산단의 성공 조성과 국가 바이오 산업 선도를 위해 앞으로도 인프라 투자 및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양혁 기자

이다. 오는 2026년 준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올해 준공 예정인 충주지식산업센터에 바이오·IT·헬스케어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청정괴산 자연올림’ 브랜드로 농특산물 전국 유통

괴산군

충북 괴산군은 ‘2025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부문에서 수상했다. 괴산은 지역에서 키운 농특산물에 ‘청정괴산 자연올림’이란 공동브랜드를 붙여 농가 소득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고 있다.

현재 괴산의 대표 특산물인 청결고추, 절임배추, 대학찰옥수수, 괴산 사과, 친환경 잡곡 등 145개 품목은 ‘청정괴산 자연올림’ 이름표가 붙어 전국에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청정 자연 환경에서 자란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정직한 생산 과정’이란 이미지로 호평을 얻고 있다.

2023년 처음 선보인 ‘청정괴산 자연올림’ 브랜드는 괴산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괴산군은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2025 괴산빨간맛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곳에서 ‘청정괴산 자연올림’ 농특산물을 관광객에 선보인다. ‘빨강’은 괴산군 대표 농산물인 고추의 상징색이다.

박소정 기자

CCTV 2768대 설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의왕시

경기 의왕시는 ‘2025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스마트안전도시 부문에서 수상했다. 의왕시는 최근 백운밸리·장안지구 등이 개발되며 도시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했다. 다양한 안전 문제가 늘자 스마트 솔루션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의왕시는 ‘스마트 안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자연·사회 재난을 감시하고 생활·도로 방범을 위한 폐쇄회로(CC)TV 2768대를 설치하고 통합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소방·재난기관에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했다.



·연기·온도를 센서가 감지해 소방서와 시청 상황실, 점포주의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불이 난 곳을 정확히 파악하고 출동할 수 있어 진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호준 기자

의왕시는 전국 최초로 전국 통시장이 부곡동 도깨비시장에 ‘스마트 화재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꽃

청정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 지속적으로 추진

태백시

강원 태백시는 ‘2025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청정에너지 선도도시 부문에서 수상했다. 태백시는 에너지 대전환 기반 경제 진흥 개발 사업을 추진해 석탄 중심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청정에너지 도시’로 전환하고 있다.

태백시는 작년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에너지 대전환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주요 내용은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 및 핵심 광물 산업 단지 조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태백 URL) 조성 ▲풍력 발전단지 지속 조성 ▲강원 남부권 산림 목재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 마이닝(광산업 디지털화) 사업 등이다.



선정됐고,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태백시는 산업 구조를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청정에너지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더 앞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김관래 기자

태백URL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공동 주관으로 추진하는 순수 연구시설이다. 태백시가 건설 후보지로 최종

관광객 지역내 소비 50% 환급 ‘강진 반값 여행’ 실시

강진군

전남 강진군은 ‘2025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체류형 관광도시 부문에서 수상했다. 강진군은 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소비 위기에 대응해 체류형 관광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 정책은 ‘강진 반값 여행’이다. 관광객이 지역 내에서 소비한 금액의 50%를 지역 화폐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 반값 여행에는 올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4개월여간 관광객 4만724팀이 참여했다. 이들은 강진군 내 1453개 업소에서 58억7000만원을 써 27억원을 돌려받았다. 이 가운데 13억2000만원이 다시 799개 업소에서



는 지난해 이 정책의 생산 유발 효과는 24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00억원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은 스쳐 가는 여행지가 아니라 기억되고 다시 찾는 도시가 됐다”라고 말했다. 손혁호 기자

사용됐다. 소비액은 총 71억9000만원으로 작년 1년간 성과(69억원)를 이미 뛰어넘었다. 심원섭 목포대 관광학과 교수

‘안성맞춤 장인·공예 문화 유통의 도시’로 육성

안성시

안성시가 ‘2025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글로벌 문화예술도시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안성시는 문화도시로서의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해 왔다.

안성시는 올해 문화예술도시 사업 비전으로 ‘안성맞춤 장인·공예 문화 유통의 도시, 문화도시 안성’을 설정했다.

이에 맞춰 ▲15분 문화 교류장 ▲찾아가는 안성문화장 ▲문화장페스타 등 시민 참여형 문화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문화예술 산업 분야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문화장인학교 ▲문화상단협의회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문화



은 안성 시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고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예술 기반 확대와 문화산업 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수상

맑은 약속 평창

평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농특산물 소핑몰 ‘맑은 약속’이 ‘2025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서 지자체 농특산물 소핑몰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맑은약속은 강원도 평창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소개해 왔다. 지역 농가와 협력해 산지 직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랭지 농산물, 대관령한우, 봉평메밀 등 특색 있는 평창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 상품 다양화를 추진해 왔다.

맑은약속은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통한 엄격한 품질관리로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고 있다. 그 결과 이번 브랜드 대상



에서 소비자 만족도, 신뢰도, 브랜드 인지도 등 6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평창군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

자는 “이번 수상은 평창 농업인들의 따듯한 정성, 그리고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평창군의 농업 발전과 실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현 기자